

# 국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

조헌하<sup>1</sup> · 박은숙<sup>2</sup> · 오원옥<sup>2</sup>

<sup>1</sup>동서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고려대학교 간호대학

## Maternal Conflicts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Cho, Hun Ha<sup>1</sup> · Park, Eun Sook<sup>2</sup> · Oh, Won Oak<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Busan

<sup>2</sup>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and explain the essences and structures of maternal conflicts in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Methods:**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for the study. Eleven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participated in the study. Verbatim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method. **Results:** Four categories, 10 clusters and 26 themes emerged from the data for the experience in maternal conflicts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The four categories were 'An unprepared young motherhood in another culture', 'Feeling left out of the mother's place along the bands of Nap tai tradition', 'My image is like not-being able to stand alone/be independent' and 'Finding hope in motherhood despite of conflicts and stigmas'. **Conclusion:**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experienced not only the negative aspects but also sublimation of maternal conflicts. Based on the results,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develop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toward a positive maternal identity and approach with interculturalism for the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ey words:** Migrants, Mother, Conflict, Qualitative research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의 빠른 국제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은 주로 만혼 여성의 결혼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에서 결혼을 전제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양상으

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외국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사례는 2003년 18,751명에서 2013년 126,704명의 약 7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을 위한 이주여성들은 아시아계가 대부분이며, 그 중 중국 국적이 51,10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이주한 여성이 38,722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1].

특히, 다른 국가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베트남 이주여성은 혼인 당시 평균 연령이 약 22세로 남편과의 연령차가 17세로 가장 많았다

주요어: 이주민, 어머니, 갈등, 질적 연구

\*이 논문은 2014년도 고려대학교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orea University in 2014.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h, Won Oak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136-713, Korea

Tel: +82-2-3290-4928 Fax: +82-2-927-4676 E-mail: wooh@korea.ac.kr

Received: July 1, 2014 Revised: July 18, 2014 Accepted: September 22,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2]. 베트남 이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고령의 남편으로 인해 빠른 자녀출산을 중용받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새로운 가족 및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동시에 임신과 자녀출산 및 양육 부담이라는 다양한 측면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에 그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3].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중국, 필리핀, 일본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보다 한국어 소통과 한국문화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부담도 매우 높은 이주 집단으로 보고되고 있다[3,4].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부담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언어소통장애, 양육문화의 부적응, 문화적 장벽, 어머니 역할의 자신감 부족, 자녀의 부적응이나 언어발달장애, 학습능력 부족에 대한 염려 등이 제시되고 있다[5]. 또한,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의 성장발달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즉,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낮고,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과 과제 집중도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촉진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와의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와 양육행동 촉진을 위한 중재전략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어머니로서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긍정적 모성정체성의 확립이다[8]. 반대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이것이 확립되지 못하였을 때 어머니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무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모성갈등(maternal conflict)을 경험하게 된다[8,9]. 모성갈등이란 여성이 어머니의 위치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로 어머니인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갈등 또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정의되고 있다[10]. 또한, 모성갈등은 자녀양육 관련 스트레스뿐 아니라 모성정체성, 자녀건강관리 수행, 어머니 역할관을 포함한 포괄적인 어머니됨을 나타내고[11], 여성을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개념과 성장욕구를 가진 존재로 보고 양육의 어려움을 아이 입장뿐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개성을 존중하고 어머니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9], 양육 또는 양육스트레스와는 차별화된다. 어머니의 높은 모성갈등은 자녀에 대한 통제적, 과잉보호적,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위를 촉진하고, 이는 아동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사회에서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모성갈등은 우리나라의 일반 어머니 보다 더욱 큰 도전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 유입의 증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축적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법적 보호정책에 대한 연구와 다문화 가족의 정착 또는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 결혼생활, 이주 여성의 욕구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3]. 결혼이주 여성의 부모-자녀 관계 측면에서의 연구는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경험 및 어려움[5] 등 주로 양육을 주제로 수행되어졌고, 다수의 연구들이 대부분 출신 국가별 차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다수가 베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12,13], 임신과 출산인식, 모유수유 실천 및 산후우울에 대한 연구[14,15],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16] 등의 양적 연구가 수행되어졌을 뿐 모성갈등을 심도 있게 탐색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모성으로서 겪게 되는 갈등의 생생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 모성정체성의 확립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촉진을 위한 민감성 높은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행동 증진을 위한 전략개발을 위해서는 이들의 모성갈등 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특정 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적 중재 연구를 위한 모델 설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그 중에서도 현상학적 접근은 참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이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17,18]. 따라서, 우리나라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임신,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낮은 문화와 가치 상황 하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성갈등이 무엇이고, 이것이 자녀의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에는 현상학적 연구가 적합하다. 현상학적 연구 중 Colaizzi[19]의 연구 방법은 참여자의 언어를 왜곡 없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을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탐색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 경험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및 베트남 다문화 가정 양육관련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 경험이 어떠한지 이해하고 모성갈등 경험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질문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는데 어머니로서의 모성갈등 경험은 어떤 것인가이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 중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체험하는 모성갈등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심층 서술 연구이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현상에 대해 가능한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경상도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추천받았다. 이들의 모성갈등 본질의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모성으로서의 민감성은 자녀의 인생초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근거하여 [20],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출산하여 현재 영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비록, 면담 진행 중에 통역사의 도움을 받기는 하더라도 연구의 특성 상 심층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국어에 능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11명이었으며 진술한 내용으로부터 새로운 본질적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까지 면담을 수행하였다. 참여자의 나이는 23세에서 31세로 평균 27세이고, 남편의 나이는 36세에서 51세 사이로 평균 42세였다. 참여자와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평균 16세였다. 한국 체류 기간은 평균 3년 1개월이었다. 첫째 아이의 성별은 남아가 4명, 여아가 7명이었으며 연령은 6개월에서 3세로 평균 1년 9개월이었다. 참여자 중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는 2명이었다.

###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참여자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D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IRB No. 2013-28)를 통과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 통역사를 통해 연구의 목적, 방법,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 참여의 이익과 불이익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자로부터 베트남어로 번역된 참여 동의서를 직접 받았다. 면담의 시작 전 연구 중이라도 원할 경우 언제나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에만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녹취 후 필사된 워드파일은 연구자의 일 컴퓨터에만 저장하고 출력된 면담 자료도 연구실의 일 지정 장소에만 보관하여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설명하고 실행하였다. 참여자와 가족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다.

###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보건소의 다문화가정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반구조화 된 개별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연구자는 참여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유념하였다. 참여자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은 잘 되었으나, 심층적인 면담 수행을 위해 평소 참여자들과 신뢰관계가 구축된 통역사를 면담에 참여시켜 이해가 어려운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았다. 통역사에게도 참여자의 이야기에 경청할 것을 충분히 숙지시켜 참여자의 이야기 진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은 “한국에서 어머니로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의 개방적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참여자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로서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면서 느낀 갈등, 역할 혼란, 자녀의 성장에 미친 영향,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진행하되, 참여자의 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면담을 진행 하는 일반-여행식 질문(grand-tour question)과 프롬프트(prompt)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진술내용에 어떤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참여자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표현과 응답도 사용하였다.

주요 면담 장소는 가정, 보건소 및 센터 등 참여자가 편안해 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정하여 수행하였고, 면담 시간은 최단 45분에서 최장 2시간 10분이었다. 면담의 횟수는 1회에서 3회였다.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해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은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취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녹취 즉시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사하였다. 그리고 면담 당시의 상황, 분위기,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 등도 메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5. 자료 분석과 평가

본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Colaizzi[19]가 제시한 분석 절차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적, 비언어적 자료에서 그들의 경험을 느끼는 것으로 이를 위해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기술과 표현의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 느낌을 얻고자 하였다.

2 단계: 탐구하는 현상 속의 구 또는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하는 것이다. 면담 필사본을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표현한 반복적인 강조 진술문으로부터 도출된 문장과 구절들로부터 의미가 담긴 문장을 연구자의 언어로 재진술하였다. 참여자가 표현하는 의미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나 진술을 가능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3 단계: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하고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도출하였다.

4 단계: 도출된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 주제모음이 참여자가 처음 표현한 원자료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분석하였다.

5 단계: 주제를 탐색하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고 포괄적인 최종적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수행하였다.

6 단계: 연구 참여자의 재참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과를 면담에 참여했던 참여자와의 추가면담을 통해 본인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6. 타당성과 엄밀성 확보

본 질적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엄밀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21]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첫째, 신빙성(credibility)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괄호처리(bracketing)하였다. 또한, 중립적 태도로 참여자의 의미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참여자의 진술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적합성(fittingness) 확보를 위해 연구 결과를 3인의 참여자에게 보여주어 자신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는지를 확

인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의 조언을 받아 연구 결과의 적합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보를 위해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사전에 구축된 절차대로 수행하면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넷째, 확증성(confirmability)은 신빙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의 기준을 지킴으로써 확립하였다.

## 연구 결과

11명의 참여자와의 면담으로부터 얻은 원자료로부터 도출한 주요 진술은 총 248개였다. 이들 주요 진술들로부터 구절과 문장을 심도 있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사한 내용들을 통합하여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진술로 의미를 구성한 결과 103개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 의미로부터 일반적인 의미를 도출하여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모성갈등 경험을 나타내는 26개의 주제를 구성하였고, 이들 주제를 더욱 추상성이 높고 포괄적인 의미로 도출된 10개의 주제모음과 4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다(Table 1). 각 범주와 범주에 포함된 주제모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제1범주: 타지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어린 모성

이 범주는 참여자들이 처음 모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모성갈등 경험을 나타낸다. 이 범주에 포함된 주제모음은 '임신과 출산의 압박으로 인한 힘겨움',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한국어라는 높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이다.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나이 많은 남편과 자신의 모국과는 사뭇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임신과 출산의 압박을 받게 된다. 결혼과 출산의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현격하게 다른 가족문화, 음식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들의 한국생활과 모성역할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한국어라는 언어장벽에 의해 더욱 좌절감을 경험한다.

#### 1) 주제모음: 임신과 출산의 압박으로 인한 힘겨움

주제모음 '임신과 출산의 압박으로 인한 힘겨움은 결혼 후 모성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채 겪는 빠른 임신과 출산의 압박으로 인한 힘겨움을 표현하며, 하위 주제로는 '나이 많은 남편으로 인한 이른 출산의 압박감', '시부모의 아들 출산에 대한 압박감' 및 '임신적응의 힘겨움'의 주제가 포함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만난 한국의 남편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만혼의 남성들로 남편이 더 나이 들기 전에 2세 출산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지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도 못한 채 임신하게



Table 1. Themes, Theme Clusters, and Categories

Themes	Theme clusters	Categories
Pressures to have childbirth as soon as getting married due to husband's old age Pressures from in-laws to give birth to a boy Difficulty in adjusting to pregnancy	Difficulty due to the pressur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n unprepared young motherhood in another culture
Difficulties due to the cultural differences in family milieu and food Suffering from cultural difference in postpartum care	Suffering many cultural differences	
Feeling heavy with worries about Korean difficulties Frustration with no time to acquire the language	Frustration because of a lack of skills due to language barrier	
Giving and receiving money when getting married similar to the Vietnamese Nap tai* tradition Being intimidated when my husband thinks that he did not get his money's worth on the marriage Suppress my feelings of scoldings by my husband and mother-in-law	Feel sense of sorrow of a foreign wife who came to be married like the modern Nap tai	Feeling left out of the mother's place along the bands of Nap tai* tradition
Parenting style is confusing Bringing up children according to my mother-in-law's method not by my own My child doesn't listen to his/her mother Worries about the child's future	Burdensome of Child-raising	
My existence in the family is like oil over water Difficult in finding my position as a mother	Feeling isolated and different from the family	
Feeling inability because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my husband's help A mother who cannot read books to her children Unhelpful and unsupportive husband and his family	Being overcome with shame	My image is like not-being able to stand alone/be independent
Upset because of social scorn and neglect Upset because my child is embarrassed by me Feel my child's flaws and mistakes are my fault	Suffers from the scorn and social stigmas	Finding hope in motherhood despite of conflicts and stigmas
Want to learn for myself Want to do my own work where I can find myself	Desire for a Vietnam mother's self-accomplishment	
Remembering the happiness at the birth of my child Want to raise a confident and worthy child	Hopes that she becomes a confident Korean child's mother	

\*Vietnamese marriage tradition that a new groom needs to make a donation to the bride's village when he gets married.

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족과 사회적 적응 또는 신체적 상태 보다는 아들을 출산하여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력도 받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참여자들은 대부분 나이 어린 20대 초반으로 양육의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모국의 친정 어머니나 가족이 지지하거나 조리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더욱 힘겨움을 경험한다.

우리 여기 오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바로 임신하는 엄마가 많아요. 저도 한국에 온지 한 달 만에 아기 가졌어요. 애 아빠가 나이 많아서 빨리 가지고 싶어하니깐.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아기 생기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참여자 3)

둘째 가지고 6개월 동안 잠 못 자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밤에 자다가 앉아 있고. 병원에서는 아프니까 빨리 수술하면 내 목숨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또 아기 낳으라고 하고... 베트남에 동생 둘 있는데, 다 딸만 있어요. 아들 원하지 않아요. 한국은 너무 아들 좋아해요. 나는 병(홍반성 루푸스) 때문에 더 임신하면 안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은 자꾸 또 아들 낳으라고 하고... 딸만 둘이라고... 이럴 때 내가 마음 많이 아팠어요. (참여자 6)

## 2) 주제모음: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주제모음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은 한국의 낯선 땅에서 베트남과는 사뭇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표현하며, 하위 주제로는 '한국의 가족문화와 음식문화의 낯설음', 산후조리 방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포함된다. 베트남 이주여성은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강한 가족공동체문화와 달리 한국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가족문화에서 처음에는 큰 충격과 외로움을 경험한다. 일부 몇몇의 참여자는 이로 인해 결혼 초기에 너무 큰 외로움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고 싶은 강한 충동도 느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음식문화가 다른 것으로 인한 고충은 가족 내에서 쉽게 적응되지 않는 어려움이다. 또한,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 방법의 차이로 인한 신체적 고충과 심리적 서운함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결혼하고 처음 명절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베트남은 명절 때 온 사람(친척)이 모여 매일 매일 함께 노는데, 한국은 안 그래요.

그냥 명절 지내고 흠어지고 자주 만나지도 않고. 내 친구들 처음에 그것 땀에 너무 외로워서 돌아간 친구 있어. 나도 그럴 뻔 했지만... 참아요. (참여자 9)

처음엔 한국음식 잘 먹지 못해서 베트남 음식하면 할머니가 안 좋아하고... 뭐라 해요. 요즘은 그래도 먹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베트남 음식 잘 안 먹어요. 다른 사람 안 먹으니까 제가 안 해요. (참여자 4)

베트남에서는 아기 낳으면 세 달 동안 설거지 같은 집안일 하나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다 해 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나 혼자 다 해야하고... 먹는 것도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기 낳고도 김치 매일 주니까 먹고 설사했어요... 아기도 봐야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참여자 7)

### 3) 주제모음: 한국어라는 높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좌절감

주제모음 '한국어라는 높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은 참여자의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모성역할 수행 시 겪는 답답함과 좌절감을 표현하며, 하위 주제로는 '한국말이 안됨으로 인한 답답함'과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로 인한 좌절감'이 포함된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에 시집와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 하였던 것은 언어문제였다. 참여자들에게 언어는 타지 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베트남 엄마들에게 언어는 단지 한국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언어발달을 위해 엄마의 언어적 자극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참여자들에게 치명적인 결점으로 인식된다. 대부분 결혼 직후 바로 임신과 출산을 과정을 거치기에 한국말을 배울 시간이 없어서 언어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답답하기만 하다. 부족한 외국인 엄마 때문에 앞으로 아이가 말을 잘 할지, 파돌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는 잘 할지 걱정이 앞선다.

옛날 보건소 교육 온 선생님이 아기 태어나면 책을 많이 읽어 주라는데... 나 한국말 못 읽어서 그거 잘 못해. 우리 아빠도 잘 안 해주는데 우리 아기 걱정돼요. 내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우리 아기 벌써 내 말 잘 안 듣고 답답해 해요. (참여자 5)

우리 ○○가 나중에 학교 가면 어떻게 하나 너무 많이 걱정돼요. 다른 애들이 '네 엄마는 외국인이니깐 같이 안 놀아줘' 할까 봐... TV에도 나왔거든요. 그거도 생각 많이 했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면 우리 아들 공부 잘 하도록 할 수 있는데, (내가) 외국

사람이니깐 말을 잘 못해서 공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예요. 너무 많이 걱정이예요. (참여자 3)

## 2. 제2범주: 뉘째오의 굴레 속에서 걸도는 엄마자리

이 범주는 결혼을 전제로 한국의 만혼 남성과 상업적인 결혼소개소를 통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됨으로 인한 모성갈등 경험을 표현한다. 이 범주에 포함된 주제모음은 '현대판 뉘째오로 시집온 외국인 아내의 비하감', '아이 양육의 한없는 버거움', '떨쳐지지 않는 가족 내 이질감'이다.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하기 보다는 결혼소개소를 통해 베트남 친정에 돈을 주고 결혼했기에 담당하지 못한 채 아내, 며느리,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눅 들기 일쑤이다. 비록,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는 했으나 한국의 낯선 자녀양육 방식, 시어머니의 양육간섭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함과 동시에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모성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버거움을 경험한다.

### 1) 주제모음: 현대판 뉘째오로 시집 온 외국인 아내의 비하감

주제모음 '현대판 뉘째오로 시집 온 외국인 아내의 비하감'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은 결혼의 성사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담당하지 못함과 그로 인한 자기비하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위 주제로는 '베트남 뉘째오처럼 결혼 할 때 돈을 주고 받음', '남편과 시집에서 본전을 생각함', '남편과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무조건 참음'이 포함된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본국에서 보았던 베트남 결혼전통 '뉘째오(Nap tai, 納財)'의 풍속을 연상케 한다. 베트남의 뉘째오는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아내 될 처녀의 마을에 물질을 기부하는 것으로 과거 베트남에서 매우 절대적인 것이었다[13]. 비록, 지금은 결혼과정의 한 단계에서 신랑이 신부와의 결혼 승락을 받는 요식행위 정도로 남아있으나, 과거에는 무리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해 무리를 빚었던 풍습으로, 아직까지도 베트남의 많은 지역에 남아있는 정통결혼예식이다[2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은 이러한 인위적인 결혼성사과정과 친정에 돈을 준 것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지 못하고 주눅 들고 가족의 잔소리에 도 무조건 참으며 비하감을 느끼며 속상해 한다.

나는 소개소 통해 남편 만났어요. 지금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베트남) 전통(뉘째오)에 여자 마을에 남자가 돈 많이 주는 거 있어요. 그걸로 잔치하고 마을에 써요. 우리 남편도 돈 친정에 주고 나 왔어요... 우리 베트남 집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인지 가끔 나한테 시어머니랑 남편이 못하면 돈 생각하는 것 같아 속상해요. 아이가 잘못하면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고 시어머니가 (말)하면 그냥 참아요. 혼자 울어요. (참여자 5)

지금은 덜 하지만 처음에 한국 와서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면 무조건 참았어요. 우리 신랑 장애인이라서 못 도와주니까... 그냥 참았어요. (참여자 11)

## 2) 주제모음: 아이 양육의 한없는 버거움

주제모음 '아이 양육의 한없는 버거움'은 첫 아이 출생 시 겪게 되는 일반적인 모성의 전환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돈 보다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참여자가 겪는 문화적 가치의 차이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양육의 버거움으로, 하위 주제로는 '양육방법의 혼돈스러움', '시어머니 방식의 자녀양육에 대한 거부감', '엄마 말은 잘 안듣는 내 아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섬'의 주제들이 포함된다. 베트남 해먹이나 아기 은팔지 사용, 신생아 돌보기, 예방접종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베트남과 한국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 후 양육 시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표현도 서툴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마 말 보다는 할머니 말을 더 잘 듣고, 엄마 말은 무시하는 아이 때문에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과 혼돈을 느낀다. 시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마음이 들지 않아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걱정하며 아이를 장차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베트남에서는 아기 처음 태어나서 은팔지 해주면 병에 안 걸린다고 해요. 아기에게 병이 나면 검은 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거 안 해주고, 베트남 엄마가 보내줘서 나는 그냥 우리 애기한테는 해 주었어요. (참여자 11)

처음 아기 키우는 방법 몰라 많이 무섭고 힘들었어요. 잠도 안자고 우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베트남에선 아기 재울 때 망으로 된 그네(베트남 해먹) 써요. 거기 눕히면 잘 자. 한국은 그런 거 안 써요. 남편은 일 나가고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아기 낳아서 몸은 아픈데, 베트남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엄마도 한국하고 베트남이 틀려서 모르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그냥 업어주라고만 하지 안 가르쳐 줘... 베트남에서 아기 낳고 한국에 올 걸 한국에서 아기 낳은 걸 후회했어요... (중략) 한국은 아기 예방접종(베트남 보다) 참 많아요. (참여자 4)

아이가 잘 못하면 '하지 마'라고 말하고 그 뒤에 뭐라 해야 하잖아요.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줘야 하는데...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엄마 말은 잘 안 들어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는 아이 야단 안쳐요. 엄마보다 할머니랑 더 많이 있고 그러

니까 내 말(은) 안 들어요... 엄마(인테) 속상하고... (참여자 1)

## 3) 주제모음: 떨어져지지 않는 가족 내 이질감

주제모음 '떨어져지지 않는 가족 내 이질감'은 시간이 흘러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질감의 표현으로 하위 주제로는 '물 위의 기름 같은 나의 존재', '엄마로서의 내 자리 찾기가 어려움'이 포함된다. 비록, 참여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잘 해주어도 외국인으로서 갖는 이질감 때문에 실제 그들의 속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느끼지는 못한다. 또한, 몇몇의 사례에서는 분명 한국의 아이를 출산한 한국 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엄마라는 어색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의견을 주장하지 못한다. 한국말이 어눌하고 한국 생활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아이가 엄마보다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참여자가 아이 돌보는 것을 못미더워하며 잔소리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온 참여자들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물 위의 기름처럼 겹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시어머니는 잘해 주거든요. 그래도 어느 점에는 (시)어머니랑 안 맞는 거 같아요.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시어머니도 그렇잖아. 이빠라 그래도 마음 안 드는 거도 있지. 눈앞에서 이쁘다 잘해라 했는데, 혹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아직 괜찮은데, 앞으로는 혹시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린 외국인이니깐... (참여자 1)

할머니(시어머니)가 첫 손자라 이빠해요... 그래서 (아이가) 내 말 잘 안 들어요. 처음에 한국말 못한다고 그래서 아이 어떻게 키우냐고... 우리 어머니 걱정해요. (아이가) 나 보다 할머니와 더 많이 지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키우라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싫어. (시어머니는) 내가 아이 보는 거 싫어해요. 어떤 때 난 우리 가족 아닌 거 같아요. (참여자 7)

## 3. 제3범주: 홀로서기가 안 되는 엄마로서의 내 모습

이 범주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느끼는 모성갈등 경험이다.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기는 했으나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에 엄마로서 해결해 주어야 할 기본적인 역할과 문제해결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능함과 자괴감을 느낀다.

### 1) 주제모음: 모자라기만 한 엄마의 자괴감

주제모음 '모자라기만 한 엄마의 자괴감'은 한 아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겪는 무능함과 자괴감을 표현한 것으로, 하위 주제로 '남편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에 대한 무능함', '아이에게 책도 못 읽어주는 모자라는 엄마'와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식구'가 포함된다. 베트남 이주여성 참여자들은 어리지만 엄마로서의 모성 역할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아이를 위해 뭔가를 혼자 할 자신도 실제 하지도 못함의 안타까움을 경험한다. 책을 잘 읽어 주지도 못 하지만 읽어 준다 해도 엄마조차 무슨 말인지 모르니 더 답답함을 느낀다. 특히, 아이가 아파도 엄마로서 잘 해결하지 못할 때 더욱 자신을 한심한 엄마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부모가 참여자의 지지자 역할을 못해 줄 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참여자들의 마음을 더욱 속상하게 한다.

○○가 아팠어요. 그때 우리 아들 열 갑자기 많이 났어요. 병원 가서는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 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왔어요'라고 해서, 열? 열? 그런데 한국말 발음 안 좋아서 (선생님) 못 알아(들)어요. 내 말 그때 아빠가 없어서 많이 힘들고 답답했어요. (중략) 남편 도움 없이 아무 것도 못하는 내가 엄마 맞나 싶어서 그날 한참 울었어요. (참여자 2)

책도 하나 못 읽어 주고, 내가 아이한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떤 땐 내가 계모 같은 생각이 들고 한심해요(한숨). (참여자 11)

#### 4. 제4범주: 갈등과 오명 속에서 희망적 모성 찾아가기

이 범주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의 힘겨운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아와 모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모성갈등 경험이다. 이 범주에 포함된 주제모음은 '별시와 사회적 오명 속에서 시달림',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이다. 동일한 아시아권이라 할지라도 가족과 음식 문화의 차이로 인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아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이주여성 참여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차별로 인한 힘겨움과 시달림을 극복하고 아이를 한국의 당당하고 훌륭한 아이로 키워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희망을 갖고 있다.

##### 1) 주제모음: 별시와 사회적 오명 속에 시달림

주제모음 '별시와 사회적 오명 속에 시달림'은 생긴 모습도 다르

고 말도 잘 못하는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해 마치 모자라는 사람 취급하는 한국사회의 선입견과 멸시로 인한 시달림의 경험으로, 하위 주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로 화가 남',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로 속상함', '아이의 나쁜 결과는 모두 엄마 탓'이 포함된다. 이주 초기에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많이 힘들어 하였는데, 이때는 본인에게만 국한된 개인의 문제였으나,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터는 개인 문제 이상으로 큰 걱정거리가 된다. 즉, 아이에게 베트남 음식을 해 주는 것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작은 것이 엄마가 한국 음식을 해 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차별과 오명이며, 특히 아이와 남편이 무시하는 경우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어린 아이임에도 엄마가 다른 한국 엄마와 외모나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엄마를 창피해 하고, 가족들이 아이가 말을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이를 모두 엄마의 탓으로 돌릴 때 참여자들은 한국에 시집 온 것을 후회하게 된다.

전번에 우리 ○○가 아파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기 아프다고 말하려 하는데 아이가 내 입 막았어요. 창피하고... 속상해요...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무시하고. 내가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아기 말 느리다고... 그러니까 외국 엄마라고 아이들이 말 못하는 거는 아니지. 외국 엄마라고 말 느린 건 아니지. 시어머니가 아빠는 순한데 아기가 엄마 닮아 성격이 세고 행동이 느리다고 해요. (참여자 8)

유치원에서 우리 ○○가 잘못 안 해도 애들이 때리고 놀려요. 다 나 때문이야. 엄마가 외국인이라서...(울음) (참여자 2)

시어머니가(아이가) 좋은 거는 아빠 닮고 나쁜 거는 모두 저 닮아서 그렇다고... 제가 참아야지 어떡해요. 말 못해요. 그럴 땐 괜히 한국에 왔다고 자꾸 후회도 하고...(참여자 4)

##### 2) 주제모음: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

주제모음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은 많은 모성갈등 속에서도 어머니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찾아가는 긍정적 경험으로 '나 스스로를 위해 배우고 싶음', '나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일을 하고 싶음'의 주제가 포함된다. 준비되지 않은 모성역할 과정을 겪으면서도 자아성취에 대한 열망으로 인한 모성갈등도 경험한다. 한국 남자 누구의 아내와 아이의 엄마가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해 배우고 싶고, 한 여자로서 꾸미고 싶은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도 크다. 대부분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은 경제가 넉넉하지 않기에 경



제적 곤란을 호소한다. 그러나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갖고자 하기 보다는 일하면서 한국말과 문화도 배울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도 찾아가기를 열망한다.

엄마, 주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미싱도 배우고 싶고, 미용도 배우고 싶고, 맨날 애들만 키우니깐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참여자 2)

사실 나 같은 외국 사람들은 집이 좀 힘들어서(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나가서 일해야 해요. 하지만 꼭 돈 벌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한국사람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다른 엄마(친구)가 도움 많이 돼요. 그게 나를 위해 더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7)

### 3) 주제모음: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

주제모음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은 멸시와 오명을 극복하는 모성갈등의 승화적 속성이 드러난 것으로 ‘힘들었지만 출산 시의 행복감을 기억함’과 ‘당당하고 훌륭한 내 아이로 키우고 싶음’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베트남 이주여성 참여자들은 어린 나이에 준비 없이 엄마가 되는 힘든 과정을 겪었으나 자녀에 대한 인식은 모성의 고유한 속성인 ‘행복감’으로 표현하였다. 비록, 생긴 외모가 한국 엄마의 아이와 다소 다르고 언어발달이 부족할지는 모르나 누구 보다 당당한 한국의 아이로 키우고 싶은 강한 모성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아이 처음 낳고 진짜 이쁘고 기뻐요. 처음 임신했을 때 입덧 때문에 힘들었지만 남편이랑 기다려서 이쁘고 행복했어요. (참여자 10)

밥도 좀 잘 챙겨주고, 한국말도 잘 가르쳐서 다음에 좋은 학교 보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 사람, 강하고 자유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참여자 11)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의 모성갈등 경험을 주제모음들로부터 도출된 현상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낯선 땅에 시집 온 어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남편으로 인해 빠른 임신과 아들 출산을 종용받게 되고 베트남과 사뭇 다른 가족문화와 낯설음 속에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면서 모성갈등이 시작된다. 이들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모성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좌절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요인은 언어장벽이다. 어린 자녀의 신체적 돌봄에 대한 요구는 어렵지만 남편과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차 해결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나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수 없다는 답답함은 모성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로 인식되고 미래의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거리로 남는다. 모성역할을 수행하는 갈등요인은 이 뿐만이 아니다. 마치 베트남의 전통 결혼풍습인 뉘째오처럼 처음부터 결혼소개소를 통해 베트남의 친정에 돈을 주고 성립된 부부관계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하는 비하감을 느끼게 한다. 언어장벽과 한국 생활에 대한 미숙함으로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아이 양육에 이르기까지 엄마로서의 홀로서기도 안 된다. 또한, 가족 내에서 물 위의 기름 같은 이질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떨쳐지지 않는다. 첫 아이 출산 시 겪는 모성 역할의 혼돈스러움 보다는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육방법의 혼돈, 시어머니 양육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은 아이 양육의 버거움을 가중시키고, 이 상태로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양육의 자신감 결여로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져가지만 뉘째오의 굴레 속에서 당당한 엄마로서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한편, 사회적 편견과 멸시 그리고 오명으로 인한 시달림으로 모성갈등을 경험하지만 모성의 고유한 속성인 자녀양육에 대한 행복감을 기억하며 아이를 누구 보다 한국의 당당하고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를 다짐한다. 한국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이기 이전에 베트남에서 온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성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아성취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가꾸고 자신 만의 일을 갖기를 열망하며 점차 희망적인 모성을 찾아감으로써 모성갈등이 완충, 승화되어져 간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하였고 그 결과 ‘타지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어린 모성’, ‘뉘째오의 굴레 속에서 걸도는 엄마자리’, ‘홀로서기가 안 되는 엄마로서의 내 모습’, ‘갈등과 오명 속에서 희망적 모성 찾아가기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타지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어린 모성’ 범주는 ‘임신과 출산의 압박으로 인한 힘겨움’,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한국어라는 높은 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의 3개의 주제 모음으로 도식화되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 한 채 시부모의 압박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머니가 되며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 방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경험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모성’을 확인한 Kim 등[23]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Liamputtong[24]의 연구에서도 호주로 이민 온 동남아시아 이주여

성들은 이민으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어머니가 되는 것이 결합하여 이중으로 부담된다고 하며 자녀양육의 버거움을 호소하였다. 실제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결혼이주여성 양육 경험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 중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언어문제와 자녀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출신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적응에 대한 힘겨움은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요구도가 28.4%인 것에 비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요구도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4].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연령차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25]. 타 아시아 국가가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 교육수준이 현저히 낮았고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16],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기타 다른 국가의 이주여성 보다 자녀양육의 버거움을 더 크게 지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민 초기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조기교육과 함께 언어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한국사회의 초저출산국 상황에서 전체 혼인의 10%가 국제결혼이라는 점이다[15]. 즉, 이들이 대한민국 후손들을 위해 모성갈등을 극복하고 책임 있는 모성정체성 및 역할 습득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신국가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베트남과 한국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 중 두 문화 간 차이점 중 두드러진 것 중 하나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아들 출산의 압박감을 호소하였다. 베트남은 한국과 동일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남아선호사상이 그리 심하지 않은 반면, 한국은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뿌리 깊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시댁이나 남편의 압박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출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13]. 최근 우리나라는 남아 보다는 여아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은 보수적인 시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확인된다 있다[13]. 이에 대해 본 연구 결과도 남아선호사상이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모성갈등의 한 요인으로 대두됨을 확인해주고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산후조리 방법, 아이용품 구입, 신생아 돌보기, 예방접종과 같은 양육의 기본에서부터 베트남과 한국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 이후의 적응에도 양육의 버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im과

Kim[26]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문화적 차이점을 통합적인 간호사정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이 모성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중재 방안으로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문화상호주의적 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ism)란 자기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재규정하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태도로 열린 주체와 열린 유대에 기초하여 삶을 구성하는 태도로[27],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유연하게 수용하게 함으로써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으로 사료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모성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국어 능력 부족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Song과 An[28]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을 알고 도움을 기대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 모자 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적응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함을 재강조한다.

‘놉째오의 굴레 속에서 걸도는 엄마자리’ 범주는 ‘현대판 놉째오로 시집온 외국인 아내의 비하감’, ‘아이 양육의 한없는 버거움’, ‘떨쳐지지 않는 가족 내 이질감’의 주제 모음으로 도식화되었다. 특히, 이 범주는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현상으로 다른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들과 차별화된 속성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결혼하려는 여자 마을에 물질을 기부하는 놉째오라는 베트남 전통문화를 현대에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서 경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참여자는 어머니나 배우자로서의 당당함을 주장하지 못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동기 중 본국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항목에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가장 높게 응답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다[15]. 결혼사유가 사랑 보다는 경제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남편과 가족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3]. 이러한 결혼과정으로 인해 시부모는 부모와 남편을 성실히 모시면서 예단을 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베트남 며느리가 보상해야 한다는 잠재된 마음을 토로하였고, 남편도 결혼지참금으로 사온 아내라는 그릇된 편견을 보여주고 있어[13]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현대판 놉째오로 시집온 외국인 아내로서 비하감을 다른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 보다 더욱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경제적 차이와 더불어 한국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는 부부관계를 위계질서에 의한 지배적 관계로 만들면서 남편과

시댁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임신 및 출산, 양육의 역할을 강요하는 일방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이것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을 유발하는 독특한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베트남 이주여성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시 이러한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속성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을 제안한다.

‘홀로서기가 안 되는 엄마로서의 내 모습’의 범주는 ‘모자라기 만한 엄마의 자괴감’의 주제모음으로 도식화 되었고 그 하위 주제로 ‘남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무능함’, ‘아이에게 책도 못 읽어주는 모자라는 엄마’,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식구’의 주제가 포함된다.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간의 관계는 모성역할과 정체성 확립이나 모성갈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의 손길에 따라 산육과 양육의 시간이 다르고 한국사회를 향한 디딤돌이자 든든한 지원자로 남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23] 베트남결혼이주 여성이 남편이 방관자처럼 행동하면 남편의 가족과 부정적 관계가 지속되지만 남편과 시댁 가족이 협조적이면 행복감을 느끼며 생활한다는 선행연구 결과[3]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에 따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모성갈등이나 모성적응이라는 극단적 상태에 처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언급한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베트남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로 한국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이므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남편에게 갖는 양육과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기대가 한국인 여성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15]. 이에 대해 Song과 An[28]도 국내 결혼이주여성이 어머니로서 동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사일과 자녀양육이라는 버거운 짐을 결혼이주여성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가사일과 자녀양육이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정적 모성갈등 완화 중재에는 반드시 남편 또는 시부모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상담과 교육도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갈등과 오명 속에서 희망적 모성 찾아가기’ 범주는 ‘별시와 사회적 오명 속에 시달림’,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이라는 3개의 주제 모음으로 도식화되었다. 특히,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은 베트남 이주여성의 모성갈등의 완충적, 승화적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모음 ‘별시와 사회적 오명 속에 시달림’에는 ‘외국인에 대한 별시와 무시로 화가 남’,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로 인한 속상함’, ‘아이의 나쁜 결과는 모두 엄마와 며느리 탓’이 포함되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 어머니라는 이유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차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든든한 지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아이와 남편, 시댁 가족들의 멸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어머니로서 모성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Kim[3]은 결혼이주여성 다수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치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갈등은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극단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베트남 여성들이 어떠한 가치갈등을 경험하고 가치갈등 완화와 가치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은 모성으로서 가치갈등도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양육효능감 증진 전에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모성갈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생각되며, 이에 본 연구는 이들 모성갈등의 심층적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모음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에는 ‘나 스스로를 위해 배우고 싶음’, ‘나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일을 하고 싶음’이 포함되며 준비되지 않은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아성취를 지향하고 일하면서 한국말과 문화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열망한다. Lee[9]는 모성갈등과 관련된 변수로 직장과 아이돌봄, 아이교육,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 아이와의 상호작용, 어머니 역할관,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추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의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은 ‘한 인간으로서의 나’ 영역 중 ‘자아찾기’에 해당된다. Lee[9]의 연구에서 ‘자아찾기’는 어머니 역할에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Greig[29]도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어머니 되기(motherhood)는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에 고립되고 감금되게 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Greig[29]의 논의와 상반되게 본 연구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외국인 어머니, 가족 내 이방인 같은 존재로서 한국사회에 적응이 되지 않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자아찾기는 양육의 버거움을 벗어나는 탈출구이자 한국 어머니 되기의 첫 걸음으로 한국말과 문화에 적응하려는 몸짓으로 보여지며 모성갈등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은 궁극적으로는 희망적 모성 찾아가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주제모음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에는 ‘힘들었지만 출산 시의 행복감을 기억함’과 ‘당당하고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음’이 포함되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임신 및 출산과정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모성으로서 ‘행복감’을 표현하고 이민자이지만 당당한 한국의 아이로 키우고 싶은 강한 희망을 확인하는 모성갈등의 승화적 측면으로 이해된다.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비록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이들에게 임신은 가족으



로 인정받는 계기이자 외국인 신부가 도망갈 것이라는 남편과 시댁의 걱정과 갈등을 불식시키는 출구이고 자녀는 결혼의 안전장치이자 한국생활에서 삶의 의미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25,28]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Lee[30]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실천에 대한 서술적 연구를 통해 이주민 여성들에게 자녀출산의 의미는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출산이라는 사건은 한국 아이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신분이 보장되는 고정편이 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더 나아가 이들에게 자녀출산은 국민됨 이상의 가치를 지님을 밝히고 있다. 즉, 이들은 갈등 속에서도 '한국의 내 아이'라는 강한 모성을 표현함으로써 모성갈등의 긍정적 승화측면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이 내 아이가 외국인이 낳은 한국 아이가 아닌 진정한 한국 아이로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어머니 스스로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을 시사한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모성갈등의 경험 속에서도 한국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강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존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들을 위한 중재 개발 시 한국의 당당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지전략이 필요함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성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출신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수행된 점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심도 깊은 탐색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모성갈등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모성갈등의 부정적 측면뿐만이 아닌 완충적, 승화적 측면의 현상도 함께 밝히고 있음에 그 의의가 있다. 셋째,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성적응의 과정에서 갈등이 가장 높은 시기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에게 직접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단위의 간호현장에서 외국인 어머니이자 여성으로서 자아찾기와 모성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베트남 뿐만 아니라 타 국적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모성갈등 관련 요인 및 모성갈등 대처방법을 확인하고 모성갈등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로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화적으로 민감성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에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모성갈등 및 모성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적 역량 형성을 위한 교

과목들을 추가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베트남-한국 양국의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모성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기 위해서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가족교육프로그램과 범문화효능감(transcultural self-efficacy) 척도 개발을 제언한다.

##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 중 가장 많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의 가치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모성갈등 경험에 대한 심도 깊은 현상학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이들만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모성갈등의 주요 핵심범주를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성갈등의 부정적, 완충적, 승화적 측면에 대한 현상의 도출과 그 각각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이 경험하는 모성갈등은 임신, 출산 및 양육 과정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었다. 즉, 한국의 임신, 출산 및 양육문화는 기존에 그들이 나고 자라면서 내면화된 베트남의 가치와 많은 상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가족,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도 모성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눈썹이라는 베트남 전통 결혼의식이 이들의 인식 속에 내재화되어 드러난 '눈썹오리의 굴레 속에서 걸도는 엄마 자리'라는 모성갈등의 심리적 맥락을 이해하고 중재해야 함을 제언한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장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부정적 모성갈등 완화를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1.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urvey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ternet]. Seoul: Author; 2013 [cited 2014 June 16].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10&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10&conn_path=I2).
2. Ok SW, Chin M, Chung G, Kim J. Comparisons of family life culture among Korean married families and Korean-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family rituals and valu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14;52(1):75-85. <http://dx.doi.org/10.6115/fer.2014.52.1.75>
3. Kim TW. The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the conflicts between values of Vietnamese female marriage migrants. *Multicultural Studies*. 2013;1(2):53-76.
4. Chung K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migration and their adjustment of life in Korea.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08;20:69-104.



5. Bang KS, Huh BY. Foreign immigrant mothers' experience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2011;14(1):36-44.
6. Kwak K.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Focus on interaction pattern and the effect between parent and child in multicultural famil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08 August 21-22; Korea Military Academy Heungmu Hall. Seoul: 2008. p. 1-26.
7. Ozkan H, Polat S. Maternal identity development education on maternity role attainment and my baby perception of primiparas. *Asian Nursing Research*. 2011;5(2):108-117.
8. Mercer RT. Becoming a mother versus maternal role attai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04;36(3):226-232.
9. Lee SA. The development of maternal conflict scale: For mothers whose over toddler-below preschool child.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2002;8(3):291-301.
10. Chang J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otional autonomy, behavioral autonomy,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s-children conflict: Focusing on the gender and age [master's thesis].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9.
11. Cho HJ, Ahn SH, Shin JS, Lee SO. Factors predicting maternal conflict in mothers of toddlers.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2005; 11(1):5-13.
12. Song YJ. Main reas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for marriage migration of Vietnamese women.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08;19(4):581-595.
13. Shin YK, Chang JK. A case study on adaptability factors in family life for 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inter-culturalism.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010;14 (3):109-122.
14. Koo SM, Kim TI. The duration of exclusive breastfeeding practice and its related factors of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13(4):1672-1683. <http://dx.doi.org/10.5762/KAIS.2012.13.4.1672>
15. Kim HG. Cross-border married women's fertility attitudes and behavior in Daegu area.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2011;49:567-595.
16. Seo H, Kim KE, Kim YH. A study of the factors impacting parenting stress of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8;13(3):121-143.
17. Maxwell JA.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1996.
18. Mehri SN, Ebadi A, Heravi-Karimooi M, Foroughan M, Sahraei H. Experiences living with fatigue in Iranian veterans chemically injured by sulfur mustard gas: A phenomenological study. *Asian Nursing Research*. 2012;6(4):181-186.
19. Colaizzi PF. Psychosoci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1978. p. 48-71.
20. Dallaire DH, Weinraub M. The stability of parenting behaviors over the first 6 years of lif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05;20(2): 201-219. <http://dx.doi.org/10.1016/j.ecresq.2005.04.008>
21. Guba EG, Lincoln YS.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1981.
22. Vũ ST. Vietnam, Vietnam people. Bae YS, translator. Seoul: Daewonsa; 2002.
23. Kim TI, Kwon YJ, Kim MJ.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2;18(2):85-97. <http://dx.doi.org/10.4069/kjwhn.2012.18.2.85>
24. Liamputtong P. Motherhood and "oral career" discourses of good motherhood among southeast asian immigrant women in Australia. *Qualitative Sociology*. 2006;29(1):25-53. <http://dx.doi.org/10.1007/s11133-005-9006-5>
25. Choe HS.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parenting self-efficacy: Focusing on Chinese, Filipinas, and Vietnames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10;48(7):1-13.
26. Kim KS, Kim MK. Maternal acculturation proc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 44(1):1-12. <http://dx.doi.org/10.4040/jkan.2014.44.1.1>
27. Kim H. Multiculturalism from a feminist viewpoint.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2007;76:203-229.
28. Song SH, An HJ.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1;20(2):167-179.
29. Greig F. *Babies, bonds and boundaries: A study of maternity among Vietnamese-Australian women in Melbourne* [master's thesis]. Melbourne, AU: University of Melbourne; 2004.
30. Lee SH. *Mothering and ident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Focusing on oral history*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